

다시 학대자의 손아귀로(RETURN TO ABUSER)

파푸아뉴기니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 지원에 나타나는 격차 및 실패

개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여성과 아동들은 충격적인 수준의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겪고 있다. 분쟁 지역을 제외하면, 파푸아뉴기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학대가 나타난다고 추산될 정도다.

이 같은 사실의 근거는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Doctors Without Borders, MSF)의 활동 경험이 잘 뒷받침해 준다. 2007년 이후, 국경없는의사회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치료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는 총 2만7993명에 달한다.

2014년과 2015년,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한 가족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res), 그리고 하이랜드 지역 내 타리(Tari)에서 처음으로 관련 서비스를 구한 사람은 약 3056명이다. 이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친밀한 배우자의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에 나타나는 패턴들의 중요한 특징을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 가족 등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에서 오히려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들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94%)은 여성이었다. 대부분 배우자, 가족,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친밀한 배우자들이 연루된 모든 사건의 1/4 이상에서 여성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환자들(97%)이 치료가 필요할 만큼 부상을 입었다. 3명 중 2명은 막대기, 칼, 마체테(날이 넓은 벌채용 칼), 몽툰한 도구 등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아동들 또한 매우 낮은 연령부터 심각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 식구들 혹은 이미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 손에 폭력을 당한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상담을 진행한 성폭력 생존자들 중 절반 이상이 아동이었는데, 5세 미만이었던 아동은 피해 아동 6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또한 포트 모르즈비에서 진행된 모든 가정폭력 상담 중 1/3이 아동 대상 상담이었고, 타리에서는 1/8이 아동 상담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 환자의 49%는 집에서 학대(대부분 강간)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생존자가 어릴수록 집에서 학대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경우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전에 알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높았다. 그리고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은 5세 미만일 경우가 높았다.

상담 후 집에 돌아간 환자 중에는 또 다시 학대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가장 최근에 당했던 성폭력 사건이 그간 반복되었던 혹은 계속 진행되었던 일이었다고 보고했다. 아동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높아서, 5명 중 거의 2명은 반복적으로 혹은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

분명,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널리 퍼져 있고 매우 파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비밀이 보장되는 양질의 무료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 외의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필수적인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또한 필요한 법적, 사회적

지원과 보호 지원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1차적으로 잔인한 공격을 당한데다가 적절한 서비스 지원과 보호 체계의 혜택도 받지 못해 '이중 희생자'가 되고 만다.

파푸아뉴기니의 체계는 공식적인 정의와 전통적인 정의가 한데 뒤섞여 있어 그 대응 수준이 부적절하며, 보호 체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존자들의 삶과 건강이 위기에 놓인다. 환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불처벌(impunity) 문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심각한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들을 푸는 데 전통적인 정의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지른 죄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돈 혹은 돼지로 갚는 방식의 '보상' 개념이 널리 퍼진 전통인데,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죄를 저지른 후에도 마을에 그대로 남아, 생존자들을 또 다른 폭력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형국이다.

사회적 지원을 구할 수 없는 가운데, 여성들은 재정적으로도 독립된 상태가 아니어서, 안전을 찾고 정의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기 자신 혹은 아이들의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학대를 가하는 배우자를 떠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를 갚는 것과 같은 문화적 관행 또한 여성들이 보호를 얻을 능력을 저해하고, 이들을 폭력적인 배우자의 손에 묶여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 세이프 하우스 등 안전하게 머물 대안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법과 정책을 제정하여 실행하는 일이 늦어져, 절실히 필요한 세이프 하우스를 개발하는 일은 진척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파푸아뉴기니 전역에 단 6곳의 세이프 하우스가 있는데 그중 5곳이 수도에 위치해 있어, 생존자 대부분은 탈출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 배우자와 가족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반복적인데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아동 생존자들의 경우, 보호와 정의를 구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 기존 세이프 하우스 중 7세 이상의 남자 아동을 수용할 곳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세이프 하우스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폭력 상황을 탈출한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렇다 할 분명한 입장이 없다. 대부분의 세이프 하우스에서는 이런 아동들을 받아들일 거부할 것이다. 공식적인 위탁 양육 체계가 없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사실상 공식적인 체계로부터 배제돼 있다. 식구들이나 지역사회가 이들을 보호할 능력 혹은 의지가 없다면 이 아동들은 다시 학대자들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 보건 당국에 가족지원센터를 인계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미 취한 상당한 전략적, 정책적 단계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 내 여러 지역에서 생존자들의 필요에 현실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

우선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이 아직 충분치 않다. 그 결과, 생존자들 중에는 침묵 속에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파푸아뉴기니 전역의 가족지원센터 16곳 가운데 단 7곳이 보건 당국의 지원 속에 온전히 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9곳의 서비스 수준은 제각각 다르다. 폭력을 당한 모든 생존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최소한의 의료 지원 패키지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을 지원 단체와 연결하는 효과적인 이송 경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병원, 세이프 하우스, 혹은 믿을 만한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시골 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개선된 대응을 신속히 보여줄 것을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파푸아뉴기니 중앙 정부 및 주 당국의 반응을 기대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당국들이 최근에 이룬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 및 안전 제공 측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단점들을 해결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러려면 자원 투자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법률 및 정책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행도 필수적이다. 이에 더하여,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보고서가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일하는 해외 기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수적인 의료 및 심리 서비스의 규모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제대로 작동하는 보호 메커니즘의 부족, 불처벌 문화, 빈약한 사법 체계 등이 뒤섞여 있는 지금의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 생존자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 및 보호를 늘리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확대된 대응 활동이 없다면, 여성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해로운 상황에서 빼내지 못한 채 계속 폭력적인 관계 속에 묶여 있을 것이다. 또한 집안에서 강간 혹은 폭행을 당한 취약한 미성년자들은 계속 학대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필수적인 의료 지원은 반복되는 학대 사이에서 그저 생존자들을 겨우 회복시키는 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은 반복되는 학대 속에 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찾아오는 동일한 환자들을 계속 치료할 것이다.